

여행이 아닌 답사, 그 깊이에 빠지다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 불광출판사 | 3만2000원



답사는 결국 오래 걷고 깊이 바라보는 일이다. 대부분의 여행이 유명 관광지를 좇아 스쳐 지나가듯 흘러간다면, 답사는 어떤 공간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며 누구에게나 들려줄 기억의 조각을 쌓아 올리는 일인 셈이다.

국내 최고의 답사가 노승대 작가의 신간이 출간됐다. 그간 사찰 속 신비로운 그림과 조각은 물론, 그 용도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찰의 문화유산에 대해 소개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그는 이번 신간을 통해 지난 42년의 답사 인생을 되짚는다. 저자가 전국 팔도를 누비며 두루 답사한 끝에 뽑은 ‘내 인생의 장소’에 관한 인문 여행 에세이로, 16개 지역의 명승지와 고적, 문화유산에 관한 역사와 그곳이 품은 시간, 기억, 정서를 함께 담아낸 역작이다.

“길을 가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노 작가는 장소의 유명세보다 공간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인터넷 검색, 문화유산 안내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도식화된 정보 너머, 잘 알려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답사지에서 마주한 도반과의 옛 기억, 사라진 숲길에 대한 회고, 산장에서 만난 산

꾼과의 추억 등 따뜻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담겼다.

도시의 소음보다 작은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한 돌장승의 기억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찾지 않아 풀이 무성한 절터에 숨겨진 사연을 더듬는 느린 여행은 곁핥기식 관광이 아닌 깊이 있는 인문 여행의 매력을 독자들에게 되새기게 한다.

그의 스승인 고(故) 조자용 박사(에밀레박물관 설립자)는 “책상머리에서 글 쓰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두 발로 직접 다니며 생생한 문화유산의 현장을 보는 건 스승의 당부로 시작된 노 작가의 숙명이었다. 그의 답사 인생도 어느덧 4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길 위에서 있는 그는 살아있는 역사의 결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명력과 온기를 담은 글이 필요하며 이는 오래 걷고,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이 금생의 의무라 생각하는 저자는 역마살이 이끄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화순, 나주, 삼척, 완주, 김천, 남원, 안동, 보은 등 전국 16개 지역의 숨은 이야기는 그곳이 품은 시간 속에 자연스레 펼쳐진다. 이렇게 들려주는 노 작가의 이야기는 때로 옛이야기 들려주는 할아버지 처럼, 때로 흥미로운 답사 여행을 제안하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진다.

기존의 답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려 건축물이 어떻게 냉축한 시대를 견뎠는지’, ‘사찰 경내에 유학자의 비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절터에 있었던



노승대 작가가 답사했던 화순 쌍봉사.

불광출판사 제공

국보급 승탑이 어떤 경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오게 됐는지’ 등의 내용을 수록해 탐구하고 해설이 미진했던 지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제는 사라진 숲길에 대한 회고와 설악산 산장에

서 만난 산꾼들과의 특별한 밤, 출가인 시절 도반과 함께한 탁발의 추억까지, 사람 냄새와 습결이 느껴지는 따뜻한 에세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그림과 쉬운 용어로 풀어낸 챗GPT 활용법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챗GPT
박상길 | 비즈니스북스 | 1만9500원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챗GPT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낸 책이 출간돼 이목이 쏠린다. 인공지능(AI) 분야 10만 베스트셀러의 후속작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챗GPT’가 그 주인공이다.

이 책은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 챗GPT의 원리를 그림과 함께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챗GPT의 핵심 구조인 GPT 모델이 어떻게 정보를 학습하고 문장을 생성하며 의미를 이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초거대 언어 모델(LLM

), 트랜스포머, GPU 가속 환경 등 복잡한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풀어냈다.

AI 엔지니어인 박상길 작가는 LLM 전문가로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챗GPT를 구성하는 실제 기술,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AI가 직면한 윤리적·사회적 문제까지 다루며 나타난다.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하려는 실무자,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개발자까지, 모두를 위한 챗GPT 입문서이자 필독서인 셈이다.

본문에는 챗GPT와 LLM, AI 기업 경쟁과 반도체까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현황을 8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이제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챗GPT는 지

난 2022년 말 등장한 지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 두 달 만에 월간 1억명을 돌파하는 등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를 단숨에 넘어섰다. 빠르게 우리 삶을 파고든 챗GPT는 이미 기확한 작성에서부터 외국어 학습, 개발자의 코드 검토, 여행 일정 추천, 예술 분야까지, 우리의 지식 접근 방식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AI 혁명을 이끄는 21세기의 거인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지도 흥미롭게 조망한다. 그뿐 아니라 챗GPT가 안고 있는 할루시네이션(그럴싸한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 문제, 저작권 이슈, 에너지 소비,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 등 기술이 가져온 고민과 도전도 업계 내부자의 시각으로 허심탄회하게 서술한다.

박찬 기자

터널의 밤
안나 불츠 | 문학과지성사 | 1만7000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9월 런던은 거의 매일 밤 폭탄이 터지는 화약고였다. 작품은 런던 지하철역 아래의 여러 갈래로 나뉜 터널로 숨을 곳을 찾아 나선 엘라와 남동생 로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나치의 폭격 속에서 전쟁에 대해 생존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소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과잉 진압으로 인해 인명 피해로 확산되는 수많은 시위현장의 오늘날에도 와닿는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그려 내면서도 암울함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 또한 아름답게 묘사된다. 네덜란드 작가 안나 불츠는 평단의 호평과 수상 이력이 말해주듯 이 작품을 통해 독목 튀는 문장으로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한다.



슬픔을 이긴 기쁨으로
노유섭 | 인간과문학사 | 1만2000원

광주 출신의 노유섭 시인이 최근 시집 ‘슬픔을 이긴 기쁨으로’를 펴냈다. 이 시집을 이루는 구절들은 노 시인이 시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견자(見者)의 시구로 다가온다. 그가 시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관점에 따라 독자를 또한 ‘견자’의 심경을 공유하게 된다. 사소한 것에 대한 따뜻한, 세월의 무게와 나이갈 길, 공동체적 인식의 소중함, 시대와 개인의 상관성, 존재론적 성찰 등 여러 부면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정문일침(頂門一鍼)을 결행하고, 직접 발설하지 않아도 진중한 의미를 산출하는 것은 노 시인의 특기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시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 에너지를 더욱 북돋아 주는 작품이다.



가속 노화 리셋
이이누마 가즈시게 | 북라이프 | 1만7000원

50여년 간 신체 능력을 연구해 온 일본의 의학박사인 저자는 지금의 30~40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당뇨, 고혈압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몸은 정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늙는 ‘가속 노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가속 노화’의 원인을 ‘면역’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면역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의 모든 질병의 배경에는 이러한 면역 폭주가 있으며 특히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40대 이후에 두드러진다. 책에는 면역 세포의 폭주를 멈출 3단계 리셋법이 담겼다. ‘노폐물 리셋’, ‘습관 리셋’, ‘장 리셋’ 등을 ‘가속 노화’를 막을 해결법으로 제시한다.



선구자가 제시하는 AI와 인간의 공생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레이 커즈와일 | 비즈니스북스 | 3만원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AI)을 예언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논쟁이 20년만의 종결판으로

완성된다. 전 세계가 기다려 온 레이 커즈와일의 신작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가 출간됐다.

AI의 발전과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는 영향이 연일 세계를 놀라게 한 가운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이미 현실이 된 그의 예측을 재평가하는 한편, 인간의 삶을 영원히 바꿀 ‘특이점’을 향한 발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작가는 지난 1990년 ‘지적 기계의 시대’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인공지능을 처음 언급하고 1999년 ‘21세기 호모 사피엔스’에서 AI가 결국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했을 때, 대다수의 학자는 그의 주장이 최소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대중에게 AI는 미지의 미래였다. 그러나 현재 AI는 세상의 거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젠스항,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빅

테크 기업의 리더들을 필두로 커즈와일의 특이점 예측을 재주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신간은 AI의 눈부신 발전과 인간의 진화가 교차하는 ‘특이점’의 도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커즈와일은 뇌와 AI의 융합, 나노의학을 통한 수명 연장, 몰입형 가상현실, 디지털 의식 복제, 에너지 혁신 등 실현 중인 기술 사례를 풍부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한다. 특히 인류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재설계하는 ‘다섯 번째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I와 인간은 경쟁이 아닌 결합을 통해 함께 진화할 것이라 강조한다. 기술이 문제를 낳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AI 시대를 두려움보다 기대와 책임으로 맞이할 것을 제안한다.

선구자 커즈와일이 오래전부터 상상했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제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가득한 이 책은 그의 주장을 빈틈없이 뒷받침할 최신 사례와 연구 결과, 풍성하게 제시된 그래프, 통계, 참고문헌 등 철저한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출처에 기반한 논리로 가득하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던 특이점 저편의 세계를 매혹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그려낸다.

박찬 기자

